정보

개요
곡명: Te Deum in C major, WAB 45
작곡가: Anton Bruckner (1824–1896)
장르: 독창 네 성부, 혼성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라틴어 찬가
작곡 과정: 1881년 초고, 1883년 9월 재착수, 1884년 최종판 완성
첫 연주: 1885년 5월 2일 빈, 두 대의 피아노 반주. Bruckner 지휘.
관현악판 초연: 1886년 1월 10일 빈, Hans Richter 지휘.
헌정: Ad maiorem Dei gloriam,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

Bruckner의 Te Deum 은 라틴어 찬가를 다섯 구획으로 압축하면서 교향곡에 가까운 음향 규모를 얻는다. 강한 C장조 합창으로 시작해 개인적인 탄원과 어두운 중앙부를 거친 뒤, 마지막 신뢰의 푸가와 코랄로 돌아온다. 거대한 합창과 금관의 선언 사이에 독창 사중창이 놓이므로, 공동체의 확신과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곡 안에서 번갈아 들린다.

작곡과 초연의 두 단계
Bruckner는 1881년 5월 3일부터 17일까지 이 작품의 초고를 썼다. 제 7번 교향곡을 마친 1883년 9월 28 일에 작업을 다시 시작했고, 성악과 관현악 총보는 1884년 3월에 완성했다. 선택 오르간 성부는 3월 16일 별도의 총보에 적혔으므로 , 연대기 자료가 그 날짜를 최종 완성일로 요약하는 경우도 있다. 1881년 초고와 1883–1884년 최종판은 서로 다른 연구 자료이며, “1881년에 완성되었다 ”고 단순화할 수 없다.

첫 연주는 관현악이 아니라 두 대의 피아노가 반주를 맡은 형태였다. 1885년 5월 2일 빈에서 Bruckner가 지휘했고, 이듬해 1월 10일에는 Hans Richter가 빈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에서 전 관현악판을 지휘했다. Singverein과 Bruckner Online은 1월 10일을 기록하지만 , Morgan Library가 보존한 프로그램 설명은 1월 11일로 적는다. 본문에서는 다수 자료가 일치하는 1월 10일을 사용하고, 하루 차이는 자료 전승의 차이로 남긴다.

출판과 연주용 판본
Theodor Rättig는 1885년 빈에서 총보와 성악 악보를 출판했으며 , 초판 총보 판번호는 T.R. 40b다. 1962년 Leopold Nowak 편집의 Bruckner 전집판은 자필 총보, 초판, 필사 자료를 서로 대조한 현대 연주 기준으로
널리 쓰인다. 오르간은 ad libitum 인 선택 성부이므로 모든 공연에서 반드시 울리는 악기로 적지 않는다.

작곡가가 이 곡을 자신의 “삶의 자랑”으로 여겼다는 말은 Bärenreiter와 출판사 자료가 전하는 자기 평가다. 이 문장은 작품의 객관적인 서열을 정하는 표현이라기보다, Bruckner가 종교적 찬가에 부여한 개인적 의미와 당대 수용을 보여 준다.

소요 시간과 편성

소요 시간: 약 23–25분. 출판사와 음원에 따라 24분 안팎으로 안내되며, 합창의 발음 속도와 구획 사이의 휴지에 따라 달라진다.

편성: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독창, 혼성 SATB 합창,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콘트라베이스 튜바, 팀파니, 현악 5부, 선택 오르간.

호른과 트럼펫, 트롬본, 튜바가 만드는 금관의 수직적인 화음은 라틴어 찬가의 공적 발화를 공간에 세운다. 반대로 독창 사중창과 목관·현악의 선율은 거대한 합창 안에 개인적인 기도와 탄원을 남긴다. 오르간이 추가될 경우 저음의 지속과 성당 같은 잔향을 보강하지만, 작품의 필수 편성은 아니다.

텍스트를 따라가는 다섯 구획

I. `Te Deum laudamus`

조성·템포: C장조, Allegro, `feierlich, mit Kraft`

“주님이신 하느님, 찬미합니다”로 시작하는 공적 찬양이다. 합창의 강한 선언과 금관의 코랄적인 화음이 곧바로 전체 음향의 높이와 폭을 정한다. 독창이 먼저 앞서기보다 공동체의 목소리가 곡을 시작하므로, 뒤의 개인적인 탄원이 들어올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II. `Te ergo quaesumus`

조성·템포: f단조, Moderato

구원을 청하는 간청으로, 첫 구획의 확신이 개인적인 기도로 방향을 바꾼다. 독창자와 합창이 교대하고 여린 현악과 목관이 성악선을 받치면서, 텍스트의 주어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로 가까워진다. f단조의 어두운 색채는 다음 구획의 긴장을 예고한다.

III. `Aeterna fac`

조성·템포: d단조, Allegro, `feierlich, mit Kraft`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짧고 격렬한 청원이다. 작품의 중앙에서 빠른 추진력과 어두운 조성이 만난다. 이 구획은 독립된 절정이라기보다 앞뒤의 탄원과 신뢰를 연결해 전체 흐름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IV. Salvum fac populum tuum

조성 ·템포: f단조, Moderato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려 달라는 기도다. 독창과 합창의 교대는 개인의 간청과 공동체의 찬양을 이어 주며, 두 번째 구획에서 형성된 어두운 조성권을 다시 불러온다. 후반부로 갈수록 첫 구획의 힘이 되돌아오면서 마지막 C장조를 준비한다.

V. In te, Domine, speravi

조성 ·템포: C장조, Mäßig bewegt
“주님 안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라는 신뢰의 결론이다. 독창 사중창의 발화가 합창으로 넓어지고, 푸가가 각 성부를 차례로 겹친다. 마지막에는 코랄적인 화음과 장대한 종지가 전체 찬가를 닫는다. 1881년 초고와
최종판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 결말을 모든 판본에 동일하게 존재한 형태로 전제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합창, 독창, 금관이 만드는 건축
다섯 구획은 교향곡의 다섯 독립 악장이라기보다 , 하나의 라틴어 찬가가 찬양에서 간청과 신뢰로 이동하는
연속적인 구조다. 첫 구획과 마지막 구획이 C장조로 서로 호응하고, 둘째와 넷째 구획이 f단조권의 기도를 놓으며, 가운데 d단조의 Aeterna fac 가 긴장의 중심을 만든다.

Bruckner의 교향곡에서 익숙한 금관 코랄과 길게 쌓이는 종지는 이곳에서 텍스트의 발음과 직접 결합한다. 합창은 음향의 덩어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주체를 공동체로 제시하고, 독창 사중창은 그 공동체 안에 인간적인 주저와 간청을 넣는다. 선택 오르간과 팀파니는 이 대비를 저음과 잔향의 차원에서 확대한다.

수용사에서 조심해서 읽을 대목
1885년 피아노 반주 초연과 1886년 관현악판 초연은 이 곡이 처음부터 교회 전례와 콘서트홀 사이를
오갔음을 보여 준다. Bruckner 생전에도 합창 협회와 공개 음악회에서 재연되었지만 , 연주 횟수만으로 작품의 종교적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다. 제 9번 교향곡의 피날레를 Te Deum 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전승도 작곡가의 신앙적 결론과 관련된 수용사이지 , 이 작품이 실제로 교향곡 피날레의 구조적 대체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주요 자료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 Bruckner 전집과 Te Deum

Bruckner Online, 연대기

Bruckner Online, 초판 디지털 자료

IMSLP, Te Deum, WAB 45

- Singverein, 1886□ □□ □□
- Morgan Library, 1886□ □□ □□□□
- Bärenreiter, □□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21 UTC by □□□
Updated 2026-10-04 10:05:21 UTC by □□□